

홀로그램 기술개발 본격 추진

기술성 평가에 이어 6개월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1817억 원 투입, 홀로그램 콘텐츠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익산시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최근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익산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북도(익산시), 경상북도(구미시)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술성 평가 통과에 이어 6개월 만에 경제성 평가 등을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춘석 국회의원은 홀로그램 포럼 개최와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활동을 펼쳤다.

예타 통과에 따라 총사업비 1,817억 8천만 원이 투입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5대 핵심기술 개발(1505억

6000만원)과 3대 사업화 실증(312억 2000만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3D 공간 정보 획득) △홀로그램 콘텐츠 생성 및 처리 기술(대용량 고속처리) △홀로그램 콘텐츠 재현 기술(무안경 3D 입체) △홀로그램 콘텐츠 프린팅 기술(볼륨형 홀로그램) △홀로그램 윈도우 광채현 기술(전면 유리 원거리 HUD) 등을 연구 개발한다.

3대 실증화 사업은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5대 핵심 기술 연구 결과를 실용화·상용화 하는 과정으로 △홀로그램 헤리티지(문화재 복원/가상 박물관) △홀로그램 상용차(홀로그램 인포테인먼트) △홀로그램 팩토리(불량검출)의 부문에서 홀로그램 콘텐츠 시제품 창출과 시장 진입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에 앞서 익산시는 올해 안

에 5G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사업(홀로그램 기술 활용)을 통한 초능력 가요제'를 개최해 대중들에게 홀로그램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홀로그램 엑스포'를 열어 대한민국 홀로그램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내 유일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유치에 이어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익산시'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홀로그램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며 "홀로그램 기술 개발로 마르사지 문화유산 복원, 자동차산업 등과 융합된 신사업 확장으로 익산시의 문화·경제적 부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홀로그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선진국의 기술종속을 피하고 홀로그램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양파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실시
지난 28일 전북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양파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양의 양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양파 소비촉진 특별행사가 실시된 가운데 양파를 구매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로 일대가 북적이고 있다.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국가산단 정주여건 개선 도움 될 것"

군산국가산단단지 인근 지역인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 일원이 2019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군산 국가산단단지 인근 지역은 지난 5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역 선정



과 함께 이번엔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선정돼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두 가지 세부 사업으로 진행된다.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은 주민면담 및 자료수집, 범죄영향평가,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안 작성 등이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역별 기초법집서 확립운동, 각종 자치활동 및 마을 안

전지도 제작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군산 국가산단 인근 지역은 주거지역 공가비율이 76%에 달할 정도로 정주 유동인구가 감소했으며 생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부족해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산단 인근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적잖았던 상황에서 매우 반길만한 일"이라며 "군산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아울러 추가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명신, 지엠군산공장 인수 마무리 힘찬 새출발

전북도, 산자부·군산시와 지원 방안 조속 마련 주호 전기차 생산 위한 공장정비·연구개발 센터 개소 준비

(주)명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13개월 만에 드디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지엠 측에 마지막 인수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중이며, 7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 정비와 자체 완성차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개소할 계획을 밝혔다.

지엠 군산공장은 1996년 대우자동차에서 '누비라'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2002년 지엠 대우, 2011년 한국지엠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5월 폐쇄 전까지 22년간 쉬 없이 공장을 가동해 전북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완성차 대기업으로서 자긍심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수출을 이끄는 주역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함께 연이은 지엠군산공장 폐쇄로 17만명에는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 인구 유출과 부동산 침체가 이어져 도민의 아픔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산업, 조선업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에 산업·고용 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 44건, 2조 9,0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

5월 31일 지엠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정부는 산업경제 관계관 회의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인이 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활용방안을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라고 방침을 결정했고, 전북도는 그에 맞춰 발빠르게 중견기업 특수목적법인(SPC), 다품종소량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자체모형 생산 등의 지엠활용 시뮬레이션을 마련해 산업부에 건의, 지엠군산공장 활용기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올 3월 지엠군산공장의 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월 인수협약 이후 기업이 순조롭게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시와 함께 투자유치보조금, 세계감면 등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고, 지역 부품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사업도 발굴해 국가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엠군산공장은 129만㎡의 넓은 부지, 국내 완성차공장 중 최신식 자동차 생산시설, 도장시설과 주행시험장을 갖추고 있는 점, 공항과 항만, 철도의 '세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등 우수한 생산과 수출여건을 갖추고 있어 연간 26만대 생산을 꿈꾸는 데 손색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명신은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엠군산공장을 인수해 부품기업에서 전기 완성차 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명신 이태규 대표는 "2021년부터 해외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 우수한 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를 활용할 뿐 아니라, 타 산업기술과도 적극적인 융합을 도모하여 다가오는 전기차 시장에서 군산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수비용을 포함 2500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설비와 연구개발능력을 확충하고, 2021년까지 650여명의 개발 및 생산인력을 고용하여, 전라북도에 새로운 전기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LX, 국가 기록물 관리에 솔선수범... 최신정보 공유의 장 열어

국민소통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화)가 국가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의 장을 열었다.

LX는 최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기록물 관리 전문가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

관리 협의회를 주관했다. 행사에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교육센터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전북대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의 전문가 등 30명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디지털 전환, 기록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와 토론,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최창화 사장은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 의무와 기업의 책임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행사가 기록 전문가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기록관리 분야의 혁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 까지 30% 감축해 나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올해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TF가 구성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금년 3월부터 농진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

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농업인 보호 대책 등을 강구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만13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16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연 23만7000톤)이 농업, 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 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며,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